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세말이다. 무리없이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

다항감 같은 걸 느꼈다. 책값이 2만3천원이었다...

대학을 흔히 상아탑이라고 한다. 이 말은 전문가도 없지 않으니 참 큰일이다.

주변부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다. 가장 어려운 데가 농촌일 것이다...

서점에 들러 서가에서 고 김충렬 교수 가 지은 '중을 대학 강의'라는 책 한 권을 빼들고 계산대에 갔다가 나는 잠시나마

에 빚대 60~70년대 사람들은 대학을 우골담(牛骨塔)이라고 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송아지값 자체 가 아니다. 사실 송아지값이 책 한 권 값만 도 못하게 되리라는 건 오래 전에 예측한 일이다...

공산품을 팔아야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다 는 거시적 전망 하나를 믿고 우리 정부는 미국에 쇠고기 시장의 빚장을 완전히 풀었다...

정부는 농민 처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업에 대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구조 조정을 하라고 뒤달린다...

여보적자(如保赤子)

황을 이기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하고 인력도 조정해야 한다...

고전을 줄들이 주고 사는 다산연구소의 박석우 선생은 며칠 전에 '여보적자(如保赤子)'라는 말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FTA든 구조조정이든 불가피하다면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경영도 좋아지면 언젠가 그 덕이 가난한 이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다산연구소 제6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재정 조기 집행 효과 극대화해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경제난 극복의 전면에 지방공무원들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으로 내년 상반기에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기 쉽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탄 대로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효율적인 재정투입 전략이 먼저 마련돼야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지방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도 지방조기 집행 추진단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하지만,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성인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쌀 직불금 문제가 연말 분위기에 묻히면서 어느새 먼 이야기처럼 잊혀져 가고 있다...

실제로 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쌀 직불금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확인의 수단으로 악용돼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임직원, 심지어는 현역 국회의원까지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낳으면서 파문이 여러 달째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출범부터 여야 간 신경전 속에서 난항을 거듭하던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가 몇몇 현역 국회의원과 관료들을

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기업 프랜들러'를 자처하는 정부당국에 도시자본의 농지침탈을 쉽게 하는 농지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려 할 뿐이다...

이런 속에서 소득직불제 예산 35% 확보는 고사하고 백주대낮에 쥐고리만 한 농민의 땀까지 훔쳐다 제 공간에 보탬 가져농민들의 파렴치한 세금 도둑질이 발각되었고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마치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요란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정작 특위는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국정을 책임지는

'새우등 터지기'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씨움판판 벌이다가 개점휴업상태에서 지난 23일 막을 내렸다고 한다...

어차피 정부여당에 대한 큰 기대는 애초에 놔두더라도 농어업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인 야당의 선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혹시 짜고 치는 뭐는 아니었나' 하는 느낌에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9일, 10대 농정공약을 발표하면서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 민소독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득직불제 예산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용정부'가 출범해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약처럼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거나 농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특별법제정하고 직불제 예산

정부여당이 저야 마땅하다. 그러나 야당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다른 농정공약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쟁기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평소에도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괜찮은 것인가?

인론,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농협이나 농민단체들은 제대로 역할해온 것인가? 오히려 요즘은 한바탕 뒤편(?)을 당한 지주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는데 그나마 부처님 소작까지 매일 농민들이 많아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때아닌 곡소리(?)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가 농사의 '농'자도 잘 모르는 땅주인들이 너도나도 농사를 짓는다고 시늉만 내거나 농토를 거의 묵힌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식량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자: [21 대표])

직장 내 모유 수유 공간 절실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유를 먹이려고 시도했지만 포기하고 말았다...

모유가 아기들에게 좋고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은 직장인 주부들치고 모유 수유가 어렵다는 것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다...

먼저 제대로 된 모유 수유 공간이 없다. 모유 수유를 하면서 출근 바로 직전 아이한테 젖을 먹이고 나온 뒤 말개는 하루 3~4번씩 젖을 짜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만 어느 직장인들 간에 유축기나 모유 저장팩, 수유 패드, 냉장고, 싱크대 등 제대로 된 수유시설을 갖춘 곳은 드물다...

지난해에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203곳의 모유 수유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6%인 73곳 뿐이었다고 한다...

▲전혜옥·광주시 동구 서석동

기고

전주연



광주 서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8.15점보다 무려 0.55점 높고 전체 기관 평균 8.17점보다도 0.53점 높은 점수다...

한편, 또 지역 경쟁력, 위상과도 직결된다. 민선4기 들어 서구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과 지방행정혁신을 비롯해 행정서비스와 복지, 규제개혁 분야에서 4개의 대통령상을 휩쓸면서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입지를 굳혔다...

도시여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청렴과 부정부패는 한 사회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청렴은 공직자의 으뜸 덕목

부끄러운 얘기지만 서구는 민선 4기 출범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지역에서 청렴도가 꼴찌였다...

그 결과 2004년 7.93점, 2005년 7.96점에 그쳤던 청렴도가 2006년 8.67점을 시작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에는 5개 구 중 3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1위를 차지 2년 반만에 광주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구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청렴도는 금품수수 여부와 업무처리 공정성, 부패에 대한 인식 등 청렴 정도를 점수화한 것으로 청렴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이며 대민서비스와 조직 내부의 합리적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있음을 뜻

로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복민관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했다...

다산의 훈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계 각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가진 국가가 번영을 구가했지만 공직자가 부패로 얼룩진 국가가는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불황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공직자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현연일체가 되어 밝고 맑은 사회를 가꾸는데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도 서구 직원들은 청렴을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으로 삼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다...

(광주 서구청장)

국도변 경운기 주차 '위험 천만'

농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경운기 사고'다. 방향지시등이 없어 추돌을 당하거나 과적으로 전복되는 사고 등이 많이 일어난다...

얼마전 무안에 일이 있어 갔다가 경운기의 위험성을 직접 경험했다. 밤 늦은 시간이라 과속은 하지 않았지만 한적한 국도인데 보니 시속 80km 정도 달리고 있었다...

▲문서희·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은 제 길가에 세워둔 모양이다. 시야가 트여 있지 않은 한적한 국도변 커브길가에 세워진 자칫 부딪힐만한 것이다...

농촌 길은 한적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농촌의 도로는 대부분 초행이다.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을 접하면 사고 위험이 아주 높다...

유치원까지 휘몰아친 영어 사교육 열풍

광주지역 유치원에도 영어 사교육 열풍이 거세다. 정부가 초등학교 영어 수업을 늘리는 등 영어 교육을 강화하면 서부터다...

취학 전 어린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걱정할 정도로 과열되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대형 영아학원 수강생의 30%가 5~7세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원어민을 구하기 어려우면 한국인 강사라도 데려다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조기교육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영어로 의사를 표현하려면

적어도 2천500시간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초등학교에서 1시간 더 수업시수를 늘리는 정도로는 효과를커녕 사교육비 증가 같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국민 영어실력을 늘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일상생활에서 영어와 부딪칠 기회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필름 대책으로 사설 학원만 배 불리는 일은 더 이상 말아야 한다.

無等鼓

'해 진 겨울밤은 춥고 아프다/ 날마다 뚫음은 지는 해 따라/ 조금씩 넘어가고/ 이제 더는 넘어갈 것 없는 캄캄한 서쪽하늘/ 회 한방울의 등불이 그림자'

신달자의 시 '겨울 일몰'의 한 구절처럼 쓸쓸하게 또 한해가 저문다. 살아갈 수록 세월의 흐름은 어찌나 빠르던지, 일할 수 있는 날 아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들이 물처럼 바

다. 늘 한해가 끝나는 이즈음 우리에게 주어 진 날이 점차 줄어드는 것과 그래서 시간의 깊어치가 더욱 커져 가는 것을 차갑게 실감한다...

60대 이상 노년층만의 세밀 소화가 아니다. 덧없는 세월과 힘든 세상상이 때문에 발병하는 우울함이 한국의 50대, 40대까지 전염된지 오래다...

후 또다시 나라는 물론 기업과 가게마저 운통 숨을 멎게 하는 2008년말 병세가 온 나라에 창궐하고 있다...

올해 초만해도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의 대통령 탄생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장미빛이었다...

하지만 출범부터 시원치 않더니 오래 가지 않아 모든 게 어

났었다. 7% 달성을 호언장담했던 경제성장률은 급전직하했다...

누가 뭐래도 행복은 돈, 그것과 함께 온다. 행복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더 어두워진다는데, 2009년을 밝혀줄 희망의 등불이 그림자...

\*/기현호 경제부처 khh@kwangju.co.kr

세월 돈 행복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URL.